

망우당설화에서 본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

곽 정 식*

차 례

- | | |
|---------------------------|----------------|
| I. 들어가기 | IV. 전승집단의 전승의식 |
| II. 망우당 광재우의 역사적 행적 | V. 마무리 |
| III. 설화에 따른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 | |

I. 들어가기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형성된 설화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도 郭再祐, 金德齡, 四溟堂, 李如松 등은 전국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며, 특히 忘憂堂 郭再祐(1552~1617)는 최초의 의병장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일생을 憂國愛民으로 일관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민족의 師表로서 널리 숭앙되고 있다.

일찍이 망우당에 관한 연구는 義兵活動에 대한 역사적 평가로부터 시작되었으나,¹⁾ 근년에 와서 망우당이 남긴 詩文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세계와 사상을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金潤坤, 「郭再祐의 義兵活動」, 『歷史學報』 33, 歷史學會, 1967, 11-38쪽; 金錫禧,

조명²⁾하는 한편, 여러 가지 전승자료에 대한 검토³⁾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하겠다.

본고는 망우당설화를 중심으로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시도된다. 망우당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실 이야기만 전해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야기와 함께 사실의 과장이나 왜곡, 왜전 등에 의한 허구화 과정을 통해서 설화적 전승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때 사실의 과장이나 왜곡 등은 사실에 대해서 갖는 민중의 일정한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설화적 전승에서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망우당설화를 중심으로 자료 전반에 걸쳐 사실과 허구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망우당설화의 존재방식을 알아보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전승집단의 전승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는 민중이 전승의 주체가 되는 구비자료⁴⁾에 국한하기로 한다.

-
- 「壬辰亂의 義兵에 관한 再考察」, 『論文集』 13, 釜山大, 1972, 99-119쪽; 李章熙, 『郭再祐研究』, 養英閣, 1983, 1-236쪽. 이 밖에 郭忘憂堂記念事業會 편, 『忘憂堂郭再祐研究』(1)(1988)에는 李章熙, 「紅衣將軍 郭再祐에 대한 綜合的 考察」, 11-27쪽; 崔永禧, 「郭忘憂堂과 壬辰倭亂」, 155-170쪽 등이 있으며, 또 『忘憂堂郭再祐研究』(2)(郭忘憂堂記念事業會, 1989)에는 金錫禧, 「郭再祐의 起兵과 社會的 基盤」, 11-38쪽. 金潤坤, 「忘憂堂郭再祐의 義兵活動」, 39-89쪽 등이 있음.
- 2) 郭忘憂堂記念事業會 편, 『忘憂堂郭再祐研究』(1)(1988)에 李樹健, 「忘憂堂文集의 刊行經緯와 關係資料의 性格」, 29-39쪽; 金周漢, 「郭忘憂堂의 文學世界」, 41-96쪽; 李完裁, 「忘憂堂의 思想」, 97-154쪽 등 3편의 논문이 실려 있음.
- 3) 蘇在英,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韓國研究院, 1982. 137-144쪽; 辛泰洙, 「郭再祐傳承의 樣相과 意味」,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林哲鎬, 『說話와 民衆의 歷史意識』, 集文堂, 1989, 201-218쪽; 吳出世, 「英雄小說의 變貌樣相의 한 考察- 郭將軍傳을 中心으로」, 『論文集』 5, 경주 동국대, 1990, 39-59쪽; 鄭炳浩, 「紅衣將軍傳의 人物敘述方法과 主題」, 『伏賢漢文學』 7, 伏賢漢文學研究會, 1991, 139-148쪽. 또한 郭忘憂堂記念事業會 편, 『忘憂堂郭再祐研究』(3)(1992)에는 辛泰洙의 앞의 논문(113-201쪽)과 함께 金光淳, 「郭忘憂堂說話研究」, 9-52쪽; 蘇在英, 「郭再祐傳承의 한 연구」, 53-78쪽. 林在海, 「傳說에 나타난 郭忘憂堂의 英雄다운과 異人다운」, 79-112쪽 등 4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 4) 망우당전설에서 구비자료를 대상으로는 김광순, 신태수가 경상북도 달성군, 경상남도 의령군·창녕군·합천군을 대상으로 채록한 158편(곽망우당기념사업회 편, 『망우당곽재우연구』(3), 1992)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전82권)고려원, 1980~1989에 채록된 23편이 있다.

망우당설화에 관한 논의는 이미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辛泰洙는 역사적 전승과 문학적 전승을 비교하여 그 同異點을 살피고, 허구성이 강한 구전설화를 통해서 전승의식을 검토하였으며,⁵⁾ 金光淳은 실록에 있는 사실들을 문헌설화에서 수용하고 그 문헌설화가 다시 구전설화화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설화화의 양상을 전승, 부연, 탈락, 굴절로 이해하는 한편, 이같은 설화화는 망우당을 영웅화하고 추존하고자 하는 전승자들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⁶⁾ 또 蘇在英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서사기록물을 통해서 망우당이 민중적 영웅상으로 부각되었다고 하였으며,⁷⁾ 林在海는 대다수 민중들에 의해 망우당이 귀족적 영웅과 민중적 영웅의 두 가지 면모 외에 이인적인 면모까지 갖춘 인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⁸⁾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망우당설화가 망우당의 실제적인 삶이나 행적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설화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II. 망우당 광재우의 역사적 행적

망우당의 역사적 행적은 官撰의 『朝鮮王朝實錄』 가운데서 망우당이 활약했던 시대의 기록인 『宣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를 비롯하여 개인기록으로서 망우당의 일대기를 정리한 <郭再祐傳>과 임란 당시 의병장으로서의 활약상을 기록한 <懲愆錄>, <亂中雜錄>, <龍蛇日記>, <龍蛇別錄> 등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裨大維(1563~?)가撰한 <郭再祐傳>(1617)을 중심으로 망우당의 역사적 행적을 알아보기로 하고, 실록과 기타 자료는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참고하기로 한다.

-
- 5) 신태수, 앞의 논문.
 - 6) 김광순, 앞의 논문.
 - 7) 소재영, 앞의 논문.
 - 8) 임재해, 앞의 논문.

<곽재우전>의 撰者인 裴大維는 생전과 사후에 걸쳐 망우당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掌書記로서 창녕의 화왕산성을 수비하고 있던 망우당을 직접 도왔을 뿐 아니라, 광해군 5년(1613)에는 망우당이 辭職疏를 올리면서 영창대군의 무죄함을 극구 주장했다가 간신들의 참소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되자, 掌令으로서 疏를 올려 구원하였다. 또 1617년(광해군 9)에는 망우당이 66세로 운명하자, 그는 世子侍講院의 輔德으로 있으면서 御命을 받들어 賜祭文을 지어올렸으며,⁹⁾ 아울러 史館에 보내 策簡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망우당의 일대기를 정리한 <곽재우전>을 입전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

이처럼 世子에게 經史와 道義를 가르치는 輔德이라는 관직에 있는 裴大維가 망우당이 운명하자마자 御命을 받들어서 賜祭文을 짓고, 또 史館에 보내 策簡에 쓰도록 하기 위해 <곽재우전>을 입전했다고 하는 몇 가지 사실에서, <곽재우전>이야말로 다른 어떤 역사 기록보다도 한층 신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輔德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함께 <곽재우전>을 입전하게 된 經緯와 목적, 입전 시기 등에서 撰者 裴大維는 보다 충실하게 실제적 행적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 전달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곽재우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身元

- 1) 황해도감사 越의 아들이다.
- 2) 南冥 曹植선생의 外孫婿였다.

2. 爲人·成長過程

- 1) 친성이 孝友하고 器宇가 원대하며 용기가 출중했으나, 평소에는 한 가하게 지냈다.
- 2) 23세 때 義州牧使인 부친을 따라가 3년을 같이 있으면서 한번도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 3) 27세 때 부친을 따라 중국 북경에 갔는데 관상쟁이가 뒷날 반드시 천하에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4) 文武에 능통하여 鄉試와 庭試에 급제하고 경전에 특히 뛰어났다.
- 5) 부친 喪中에 첩이 증병으로 한번 만나보고 죽기를 청했으나 거절하

9) 『망우선생문집』 권5, 부록편 참조.

10) 『망우선생문집』 권4, 부록편 참조.

고 상례를 엄격하게 지켰다.

- 6) 부친 상례를 마치자 科擧를 포기하고 漁翁으로 자처하며 세월을 보냈다.

3. 義兵活動과 出仕

- 1) 임진년 왜란에 나라에 보답할 것을 家廟에 아뢰고 家財를 털어 義兵을 모집하였다.
- 2) 新反 國庫의 곡식과 草溪의 兵器를 취하여 병사들에게 지급하였다.
- 3) 민심이 흔어져 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여 기율과 의리로 깨우쳐서 안정을 도모하였다.
- 4) 왜장 安國司가 鼎津에 이르자 요새에 진을 치고 疑兵을 설치하여 물러가게 했다.
- 5) 天降紅衣將軍이란 기치를 내걸고 전투에 익숙하지 못한 병사들을 대신해서 언제나 산봉에 섰다.
- 6) 왜적의 포탄이 쏟아졌으나 끝내 傷害를 입지 않았다.
- 7) 훌륭한 말이 스스로 달려왔으며, 말을 타고 빨리 달리니 사람들이 神의 도움이라고 하였다.
- 8) 병사들이 믿고 따름에 연전연승하였으나 戰功을 위해 죽은 적군의 목을 베는 일은 하지 않았다.
- 9) 병사들을 가족같이 돌보고 군법을 시행함에 私心이 없었으므로 모두들 충성을 다하였다.

10) 순찰사 金胙와의 반목과 대결

- ① 망우당이 김수의 죄를 열거하여 격문을 보내고 임금님께 疏를 올렸다.
 - ② 김수는 망우당을 반역으로 몰아 장계를 올리고 망우당에게 격문을 보내왔다.
 - ③ 망우당이 의병과 역적의 구분은 天地가 알 것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모두 이를 傳誦하였다.
 - ④ 초유사 金誠一이 朴思濟를 통해서 망우당의 인물됨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 ⑤ 김성일이 망우당을 구원하기 위해 거듭 장계를 올렸다.
 - ⑥ 임금님께서 망우당을 따뜻하게 타이르는 恩典을 베풀었다.
 - ⑦ 망우당이 雪憤의 눈물을 흘리며 병사들을 격려했다.
- 11) 왜적이 망우당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므로 경상우도와 전라도가 온전함을 얻었다.
 - 12) 유곡찰방, 형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뒤에 성주, 진주목사를 역임함에 행정의 맑기가 물과 같았으나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 13) 체찰사 李元翼이 중국 總兵 楊元의 군사를 영남으로 이주시키고자 함에 망우당이 만류하였다.

- 14) 정유재란에 방어사로서 창녕의 화왕산성을 수비하였다.
- 15) 계모상을 당하자 울진으로 이주, 패랭이를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꾸렸다.
- 16) 여러 번 복직 명령이 있었으나 喪中이라는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 17) 경상좌절도사가 되어 울주의 島山城을 수리코자 했으나 조정에서 불허하자 귀향하였다.
- 18) 洪汝詢의 탄핵을 받아 영암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4. 晩年の 隱居

- 1) 비슬산에 들어가 辟穀하였다.
- 2) 滄巖을 은거지로 삼아 忘憂亭을 지었다.
- 3) 時弊를 논하고 변방의 방어를 걱정하였다.

5. 죽음

- 1) 망우당이 운명하던 날,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렸으며 붉은 기운이 하늘에 뻗었다.
- 2) 임금님께서 禮官을 보내 廬幕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망우당은 고귀한 혈통의 집안에서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서, 처음에는 학문을 닦고 경전을 공부하여 몇 차례 과거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父親 喪禮를 마친 후로 곧 세상 영화를 뜬구름 같이 여기고 강호에 은거하여 漁翁을 자처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망우당은 다시 하루 아침에 떨치고 일어나 가산을 털어서 의병을 모집하고 언제나 선두에 나서서 왜적을 물리쳐 국난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이같은 공으로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끝내 높은 벼슬도 사양한 채 辟穀餐松으로 여생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망우당은 실제로 귀족적 英雄의 면모와 함께 異人으로서의 면모를 두루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망우당이 직분을 망각하고 도주한 순찰사 金睟에게 격문을 보내 討伐誅戮할 것을 외쳤다가, 심지어 경국치민의 법도를 소홀히 한 군왕에 대해서 목숨을 건 直言極諫도 서슴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들에서 망우당의 시종일관 투철한 憂國愛民과 義理精神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곽재우전>을 통해 裴大維가 전하고 있는 사실 기록은 임진왜란 때 李魯가 경상우도 招諭使 金誠一의 幕僚로 있으면서 망우당의 의병활동을 포함하여 당시의 사정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龍蛇日記』에서부터 柳成龍의

『懲愆錄』, 吳希文의 『瑣尾錄』, 『龍蛇別錄』 등을 통해 거듭 사실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¹¹⁾ 그 후에 官撰 『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光海君日記』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망우당의 年譜·墓地銘·諡狀·神道碑銘 등도 기본적으로 <곽재우전>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¹²⁾

Ⅲ. 설화화에 따른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

1. 설화화의 계기

역사적 인물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게 되는 동인은 바로 주인공인 인물의 사람됨과 그가 보여준 삶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됨과 행적이 예사 사람들에 비해 훌륭하거나 흥미로운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실의 이야기는 허구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설화로 전환된다. 따라서 망우당설화가 지금까지 3백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각편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의 사람됨과 삶의 행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한다고 하겠다.¹³⁾

그렇다면 망우당이 설화의 주인공이 되고, 그에 관한 사실 이야기가 설화로 전환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망우당이 설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곧 그가 민중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흥미롭고 가치있는 인물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민중들이 보여준, 망우당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가 설화

11) 이 밖에 망우당 자신이 남긴 書(上招諭使金鶴峰, 答招諭使, 上招諭使 등), 文(通諭道內列邑文, 檄巡察使金胥文), 疏(倡義時自明疏, 辭起復疏, 棄官疏, 辭召命疏, 討逆疏, 中興三策疏, 陳時弊疏, 請罪通事遠接使疏, 陳時弊請去疏, 救永昌大君疏 등) 같은 각종 글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12) 이에 따라서 망우당의 의병활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실제로 위와 같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金潤坤, 「郭再祐의 義兵活動」, 『역사학보』 33, 역사학회, 1967, 11-33쪽; 李章熙, 『郭再祐研究』, 養英閣, 1983, 1-236쪽 등 참조)

13) 임재해, 앞의 논문, 80쪽.

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망우당에 대한 민중들의 깊은 관심과 흥미가 그 무엇에 기인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23편의 자료와 최근에 金光淳, 辛泰洙가 채록한 158편 등 181편을 살펴본 결과, “조남명의 외손서가 된 내력”, “도량이 넓은 광재우” 등과 같은 망우당의 사람됨과 관련된 자료가 24편, 정암진 전투 및 화왕산성의 축조와 방어 등, 임란과 정유재란 때 왜적을 물리친 명장으로서의 활약상에 관한 것이 127편, “귀로 술을 내놓는 재주”, “신선이 된 광망우당” 등 만년의 은거에 관한 자료가 11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망우당의 명장으로서의 활약상에 민중들의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명장으로서 망우당의 활약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암진싸움” 11편을 비롯하여 “벌과 화약”(9편), “위장전술”(13편), “모과와 석류”(4편), “무쇠바가지”(3편), “말 씻기는 물”(9편), “날아 다니는 홍의장군”(4편), “화왕산에서 사용한 전술”(2편), “신출귀몰한 광재우”, “그네로 왜적을 물리친 광재우” 등 67편이 출중한 지략을 발휘해서 왜적을 물리친 이야기들이다. 뿐만 아니라, 망우당의 사람됨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서도 “망우당의 안광”, “피 많은 아이 광재우” 같은 자료는 망우당이 실제 전투에서 보여준 지략 위주의 기발한 전술과 깊이 관련되거나 거기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전승되고 있는 구비자료를 통해서 볼 때, 망우당의 명장으로서의 활약상, 특히 지략 위주의 기발한 전술에 민중들의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었고, 이를 계기로 설화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룩된 망우당설화는 오랜 전승과정에서 망우당의 생애 전반에 걸친 이야기로 영역이 확대되었고, 더러는 일대기 형식을 갖추어 전승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망우당의 역사적 삶의 현장과 관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민들이 전승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다양한 관심을 반영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하겠으나, 한편으론 문헌에 의한 사실기록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다양한 유형의 각편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까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2. 사실과 허구의 구체적 양상

1) 사실이 그대로 구전되어 온 것

이는 설화의 최소 요건인 구전성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하지만, 실존인물에서는 사실 그대로의 구전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망우당의 신원을 밝히는 데서 황해도감사 곽월의 아들이라거나, 남명 조식 선생의 외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그대로 구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곽재우장군의 어른이 전라감사를 강계”,¹⁴⁾ 혹은 “경상감사던가, 어대 감사던가 감사라”¹⁵⁾하거나, “곽월의 아들인데 5형제에 끝 막내”¹⁶⁾라고 해서 반드시 사실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구연자의 특정 의도에 따른 변이가 아닌 만큼 사실이 그대로 구전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처럼 사실 이야기가 구연에 의해서 전송된다고 하는 것은 설화로의 전환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세히 따져가면서 구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흔히 錯綜이 일어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곽감사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망우당이 따라가 2년 동안 이조를 지켰다.”¹⁷⁾든가, “서너 살이 안 되어 중국에 갔다가 황제에게 질문을 받고 쾌히 대답을 함으로써, 그 영특함이 나라를 위해 언젠가 이바지할 날이 오리라는 칭찬과 함께 붉은 비단과 버루를 선물로 받았다.”¹⁸⁾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망우당의 의리가 남명 조식 선생의 의리를 이어받아서 그렇다”¹⁹⁾거나, “이십이 넘어서 남명 선생한테 글을 배웠다”²⁰⁾고 하는

14) 『망우당곽재우연구』(3), 곽망우당기념사업회, 1992, 자료 114, 289쪽. 앞으로 『망우당곽재우연구』(3)에 채록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편의상 자료의 번호만 제시하기로 한다.

15) 곽재우장군 일화(3),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76쪽.

16) 곽재우장군, 『한국구비문학대계』 2-3, 536-538쪽. 『홍의장군곽망우당』(곽망우당기념사업회, 1959), 33쪽에 의하면, 망우당은 5형제 중 3남으로 태어났다고 하였다.

17) 곽재우장군 일화(3),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76쪽.

18) 자료 20, 221쪽.

19) 곽재우장군 일화(2),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48쪽.

20) 곽재우장군 일화(3),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76-80쪽.

이야기도 실제 사실이 그대로 구전되어 온 예이다. 망우당이 본래 부자였다거나,²¹⁾ 외가²²⁾ 또는 처가가 부자였다²³⁾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에 그대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²⁴⁾ 또 명장으로서의 활약상과 관련해서 널리 膾炙되고 있는 ‘정암진싸움’도 기실 사실 이야기에 다름이 없다.

왜군이 한 날은 해그를 때에 기습대가 와 가지고 특공대가 기습대가 먼저 와 가지고 그 나무를 전널라꼬 인자 가장 얇은 데를 갔다가 와 가지고 지름대기를 꼬자노코 표시를 딱 하는 걸 아시고 인자 밤에 인자 살짝 가지 가지고 그 표시를 갔다가 아주 물 깊은 자리를 갔다가 유인해서 지름대기를 끊고 이짜 나오는 데는 아주 진흙 구디기쪽을 나오도록 그래 꼬지 노았다. 그러자 마자 마침 대 아닌가 고날 밤에사 왜병이 들어는 걸 보고 장정들을 갔다 모아 사람은 밧 안 땀지마는 하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뛰어난 활솜씨와 활솜씨가 있다 보니 왜병이 도강해가 오는 거를 갔다가 전부 다 소멸했어.²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발한 전술 위주의 전투에 대해서, 사실기록은 대개 망우당이 임기응변에 능하여 그 작전이 비상했다거나, 요새에 진을 치고 疑兵을 설치하여 적군을 물리쳤다거나 해서 극히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용사별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정진에는 수렁이 있어 걸어다닐 수가 없으므로 적군이 먼저 침병으로 하여금 전조한 곳을 가려 나무에 깃발을 달아 표시해 두고 장차 아침 나절에 건너려고 했다. 공은 그것을 정탐하여 알고 밤중에 휘하의 장사들을 거느리고 그 곳에 이르러 깃발을 달아 둔 나무를 뽑아 수렁 가운데로 옮겨 꽂은

-
- 21) 자료 4, 209쪽, 자료 31, 229쪽, 자료 117, 290쪽,
 - 22) 광재우장군 일화(2),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26-27쪽.
 - 23) 자료 47, 244-246쪽, 자료 54, 250-251쪽, 자료 62, 256-258쪽. 자료 71, 267-268쪽, 광재우장군 일화(3),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405-406쪽.
 - 24) 『선조실록』 권21, 선조 25년 6월 28일조 및 『망우선생문집』 부록, 傳 참조.
 - 25) 자료 2, 208쪽. 기타 자료 2, 207쪽, 자료 6, 210쪽, 자료 31, 229쪽, 자료 36, 234쪽, 자료 49, 247쪽, 자료 80, 272쪽, 자료 89, 275쪽, 자료 93, 277쪽, 자료 98, 279-280쪽, 자료 102, 281-282쪽, 광재우장군 일화(1),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46-47쪽.
 - 26)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5년 6월 1일조, 8월 1일조 및 『망우선생문집』 부록, 傳 참조.

다음 잠복하여 기다렸다. 과연 적군이 이르렀는데, 모두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함에 잠복해 있다가 덮쳐서 거의 사로잡게 되었다.²⁷⁾

이렇게 볼 때, 망우당설화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야기가 그대로 구전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설화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망우당이 실제 행적에서 보여준 영웅다움이나 이인다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 때에 망우당이 효자였다는 것, 부모님께 효도했던 이야기가 책자에 나타나는데 자기가 세째 아들로써 그것도 자기를 낳아준 모친은 세상을 떠났고 계모인데 그 계모가 전처 아들(곽망우당)을 그렇게 사랑했다 하더만. 저 황산에 진을 칠 때 그 모친이 일본군인한테 욕이 욕이나 당할까 싶어서 황산에 진에까지 모시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다.²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송충이는 술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기라. 산에 사는 사람은 어때까지나 본분을 지키고 그대로 산에서 수양하는 기 옳은 거지. 자기가 임진왜란 때 전과를 올리고 공헌을 했다고 해서 벼슬을 준다고 해서 주저않는다는 것은 자기 본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 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지. 이조실록에는 나오지 않고, 역사책에 그대로 나오니다.²⁹⁾

위의 이야기는 망우당이 계모에 대해서 효성이 지극했다는 내용이고, 다음은 망우당이 말년에 국록을 거부하고 辟穀餐松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구연자 자신이 “이야기가 책자에 나타나는데”라거나, “역사책에 그대로 나오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곧 실제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처음에 명장으로서의 활약상이 계기가 되어 설화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만큼, 대체로 망우당의 기발한 전술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 사실에 그대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망우당이 특히 위장전술에 능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전자료에

27) 『망우선생문집』 부록, 龍蛇別錄, 津有淖 不可行 賊先使導者 擇高燥設木旗之 將以朝日渡 公詢知之 用夜半率麾下壯士 馳至其所 拔其木易置之淖中 因伏以俟 賊果至 至則陷淖中 莫能脫 伏遂發幾覆之.

28) 자료 9, 211쪽. 기타 자료 10, 212쪽. 곽재우장군 일화(2), 『한국구비문학대계』 2-9, 48쪽.

29) 자료 135, 299-300쪽.

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니와 사실기록도 이를 입증해 준다. 망우당이 십수 명의 용맹한 장사를 뽑아 홍의를 입히고 백마를 타게 하여 유인작전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용사별록>의 그것에 그대로 일치한다.

왜놈이 원채 군사가 많아서 대군이 밀어닥치자 할 수 없이 다른 수를 썼어. 자기는 늘 홍의예다가 백마를 타고 있었는데, 홍의백마 탄 장수를 십여명 선출해 가지고 각 곳마다 배치를 시켜 싸우는데 그렇게 적이 장수인가 싶어서 추격한게 산중 숲속으로 다망을 간다. 도망을 가다 금방 나왔는데 또 여기서 나오거든. 또 그걸 여기서 추격한게 저기서 하나가 또 나오거든. 불로 의병(疑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숲속에 숨겨두어, 군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놈들이 정신을 못채웠어. 그래가 못건니고 피해서 달아나는데 뒤에서 쳐가주고 많이 죽었다.³⁰⁾

공은 용맹스러운 장사 십수 명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흰 말을 타게 하여 배치한 뒤 북을 치고 외치면서 달려나가 적진 가까이 접근해서 적군을 유인했다. 적군은 차립새가 장군이므로 성을 비워놓고 추격해 가기를 10여 리에 이르러 산골에 들어가 공이 있는 곳을 잃어버렸다. 적군이 놀라고 의심스러워 홀연히 앞 언덕을 바라보니 거기에 또 붉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탄 사람이 북을 치면서 외치고 있었다. 적군은 더욱 놀라 추격했으나 잠시 후 또 잃어버렸다. 다만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산을 울리고 깃발이 언덕에 나부끼고 있어 적군은 더욱 놀라서 모두 귀신이라고 했다.³¹⁾

또 망우당이 왜적의 대군을 맞아 싸우면서 적은 수의 군사를 많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장전술을 썼다고 하고, 횃불로 적을 교란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용사별록>에서 전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열 사람되는 비결을 썼어요. 고계서도 뵈고 하니 횃대를 말이다. 불로 여계다가 한 사람이 한 손에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열 개를 들었다 말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왜놈들이 저 먼 데서 불 때는 말이야 열 사람으로 보이거든. 이쪽 군인들이 열척없이 많아 보이니까 도망을 가빠웠다. 꼭재

30) 자료 88, 275쪽.

31) 『망우선생문집』 부록, 龍蛇別錄, 乃擇驍壯者十數以從 白衣紅衣乘白馬 從者皆如公 服騎亦如之 鼓譟出直薄賊壘 左右馳以誘之 賊貌其爲將 空壘而追行十餘里 入山谷失公所在 賊方驚疑 忽見前崖 又有紅衣白馬者 鼓以譟 賊又大驚 追之俄頃 又失之 但聞鼓角殷山 旗幟草阿 賊愈益驚 咸以爲神.

우는 순 전술로 써서 요새 말로 하마 전략가로서 그렇게 훌륭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³²⁾

공은 밤에 사람들을 시켜 비슬산에 올라가 10여 리에 걸쳐서 한 사람이 두 개의 횃불을 들되 한 횃불에 모두 3개씩의 불꽃을 달게 하고 일제히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한꺼번에 횃불을 들게 하였다.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서 마치 습격하려는 듯이 하다가 갑자기 횃불을 꺼버리고 조용히 하여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였다. 잠시 후 또 다시 이렇게 하니 적들이 크게 놀라고 의아해 하였다.³³⁾

이 밖에도 망우당이 중국 황제가 하사한 붉은 비단을 가지고 홍의장군이 되었다거나,³⁴⁾ 나라에서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국록을 거부했다는 이야기,³⁵⁾ 정유재란에 화왕산성을 축조하고 수비했으며,³⁶⁾ 계모상을 당하자 울진으로 이주하여 패랭이를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³⁷⁾는 이야기, 비슬산에 들어가辟穀餐松으로 지냈다가,³⁸⁾ 신선술을 닦은 이유를 당쟁으로 인한 조정의 혼탁한 분위기 때문이었다³⁹⁾고 하는 이야기, 운명하던 날에 붉은 기운이 하늘에서 뻗었다⁴⁰⁾는 이야기에서 대체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료 101, 281쪽. 기타 자료 66, 262쪽, 자료 122, 293쪽, 자료 123, 293-294쪽, 자료 127, 301쪽.

33) 『망우선생문집』 부록, 龍蛇別錄, 公夜令人上琵琶山 遙逸十餘里 人持兩炬 炬皆三頭 鼓角齊發 一時舉火 或遠或近 若將掩襲 忽焉火滅 寂若無人 俄頃之間 又復如之 賊大驚疑.

34) 자료 34, 232-233쪽, 자료 38, 236-238쪽, 자료 46, 243-244쪽, 자료 64, 259-260쪽, 자료 87, 274쪽, 자료 114, 289쪽. 자료 129, 296쪽, 자료 130, 297쪽, 자료 145, 305쪽, 『선조실록』 권21, 선조 25년 6월 28일조 참조.

35) 자료 28, 227쪽, 자료 53, 250쪽.

36) 자료 23, 222-223쪽, 자료 24, 223-224쪽, 자료 83, 273쪽, 임란시 화왕산 전투,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350-351쪽.

37) 광재우장군 일화(2),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47쪽.

38) 자료 4, 209쪽, 자료 117, 290쪽, 자료 135, 299-300쪽, 자료 136, 300쪽, 『선조실록』 권25, 선조 40년 3월 6일조, 5월 4일조 및 『광해군일기』 권32, 광해군 9년 6월 4일조 참조.

39) 자료 136, 300쪽.

40) 자료 116, 289-290쪽, 『광해군일기』 권32, 광해군 9년 4월 27일조 참조. <광재우전>에서 망우당이 운명하던 날,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렸으며 붉은 기운이 하늘에 뻗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자연현상의 하나로, 예전대 여름날 소나기

2) 사실을 부연해서 허구화한 것

사실에 근거를 두되 이를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점차 허구성을 띤 이야기로 전환되는 바, 특히 망우당의 비범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눈에 정기가 흘러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⁴¹⁾거나, 벼논에 날아드는 새를 쫓기 위해 줄에 양철 조각을 매달아두고 물레방아를 만들어 자동으로 소리가 나도록 장치를 했다⁴²⁾거나, 산에 소 먹이러 갔다가 동네 아이들과 소를 잡아먹고는 소꼬리만 집에 들고 와서 하는 말이, 돌 틈에 들어간 소를 잡아당기다 꼬리만 빠졌다고 했다⁴³⁾거나,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 선생님과 수수께끼 시합을 하다가 문득 문지방에 서서, 나갈 것이냐, 들어갈 것이냐 하고 물어 대변에 의통이 틀렸다고 했다⁴⁴⁾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 또 명장으로서의 활약상을 이야기하면서, 망우당이 흥의를 이용해서 둔갑법을 썼다⁴⁵⁾거나, 밤에 새끼줄을 쳐놓고 거기에 허수아비나 붉은 옷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아, 불을 피워놓고 불 때는 수백 명이 강을 막고 서있는 것처럼 기만전술을 썼다⁴⁶⁾거나, 벌통을 가지고 땅벌이나 화약을 이용해서 왜군에게 피해를 주었다⁴⁷⁾거나, 흰쌀을 이용해서 마치 식수가 풍부한 것처럼 왜군을 속여서 물러가게 했다⁴⁸⁾는 이야기, 또 왜적들에게 옷칠한 바가지를 무쇠 투구로 오인하도록 하여 겁을 주어 물러가게 했다는 무쇠바가지 이야기,⁴⁹⁾ 물이 부족한

가 온 후의 무지개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41) 자료 8, 210-211쪽, 자료 11, 212-213쪽, 자료 15, 215-216쪽, 자료 58, 252-253쪽, 자료 106, 283-284쪽.
 42) 자료 47, 244-246쪽, 광재우장군 일화(3),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27-29쪽.
 43) 자료 26, 226-227쪽.
 44) 광재우장군 일화(4),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407쪽.
 45) 자료 95, 278쪽.
 46) 자료 41, 239-240쪽, 자료 61, 255쪽, 자료 66, 262쪽, 자료 73, 269쪽, 자료 76, 270쪽, 자료 100, 280-281쪽, 자료 141, 303쪽, 자료 153, 310쪽, 광재우장군 일화(1),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46-47쪽, 광재우장군 일화(2), 앞의 책, 349-350쪽.
 47) 광재우장군 일화(1), 『한국구비문학대계』 8-10, 348-349쪽에서는 벌통이 꽃상여로 변이되었음.
 48) 미등바위와 광재우장군,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481쪽.
 49) 자료 5, 209쪽, 자료 75, 269-270쪽, 자료 79, 271쪽.

산중에서 목말라 하는 군사들에게 모과, 석류를 외치게 하여 갈증을 풀게 했다⁵⁰⁾거나, 짚단에 흰옷을 입혀놓고 왜적이 거기다 화살을 쏘게 하여 그 화살을 이용했다⁵¹⁾거나 하여, 특히 많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와 같이 망우당의 비범성을 설명하자고 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 행적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 실록에 의하면, 망우당은 어려서부터 담력과 용맹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임기응변에 능하였고, 또 장수의 지략을 갖추고 있어 적을 막는 일이 보통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모두가 칭찬하고 장수 재목으로 하여했다고 하였다.⁵²⁾ 그러나 사실이 그렇더라도, 구체적 사례란 결국 화자의 입장에서 취택된 것이므로 그 자체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1) 하루는 큰 길가에 성을 쌓아 두었는데 어느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발굽에 닿아서 성의 돌이 무너졌다. 그 접잡은 선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곽망우당이 기어이 그 사람을 잡으려 했다. 그 행인은 망우당이 기이하게 여겨져서 망우당의 집에 찾아가 보았다. 찾아가 보니 집도 좋지 않고 엉망이었다. 그래서 그 행인이 망우당의 부모에게 하는 말이 “이 아들을 잘 키워 보시오. 나를 기어이 잡으려 하는데 장래 이 사람은 큰 장군이 될 모양이라 장군이 되어 이 세상을 한번 뒤엎을 것이다.” 했다.⁵³⁾

2) 조남명 선생이 외손서를 맞이하려고 시험을 볼 때 사람 몇이 몰려왔는데 그들 중에는 망우당도 끼어 있었다. 남명선생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나온 국은 소태를 굉장히 많이 넣은 썩은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 보더니 너무 썩어서 먹지 않았는데 망우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국과 밥을 다 먹었다. 상을 물리고 남명선생이 물기를 “자넨 국맛이 썩을텐데 어찌 다 먹었느냐?” 했다. 망우당이 말하기를 “국하고 밥은 천상 서로 배합이니 썩어도 참고 먹었습니다” 했다. 그래서 남명선생은 이런 사람에게는 외손서를 보내도 괜찮으리라 생각해서 망우당을 외손서로 택했다 한다.⁵⁴⁾

50) 자료 16, 216쪽, 자료 17, 216-217쪽, 자료 59, 253쪽, 천생산성과 곽재우장군,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545-546쪽.

51) 자료 40, 239쪽.

52) 『선조실록』 권21, 선조 25년 6월 28일조,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5년 6월 1일조, 『선조실록』 권22, 선조 28년 12월 28일조 참조.

53) 자료 29, 228쪽. 기타 자료 43, 240-241쪽, 자료 58, 252-253쪽.

54) 자료 1, 207쪽. 이와 함께 망우당의 부인이 아주 불출이었다고 하면서, 어리석고

3) 그런게나 뭐 종이가 종이 아닌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기 가벼운 물체
겠죠. 뭐 종이를 가지고 인자 꺼들고 커다란 바위같이 맨들어 가지고 막 베
고 땡기고 차고 땡기고 쌓으니까 적이 그런 것 보고, “야, 저기 장사가 많구
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겁을 냈다 쿠는 이런 얘가지.55)

4) 아 그래 이 장수가 조선 사람을 얼마나 깔보는지 광재우가 성이 디기
났어. 그래가 언제든지 한번 혼을 내 줄라꼬 베풀고 있었지. 사람 많은 데서
혼을 내마 곤란하거든. 하루는 칩간에 가다가 요새 가트마 화장실인데 거기
서 딱 마주쳤어. 보통 높은 사람에게는 고개도 못들고 이래 피하는 법인데
광재우는 피하지를 안 했어. 그렇개네 당연히 중국 장수가 썩이 날꺼 아이
라. 광재우 맥살이를 탁 잡는 걸 보고 광재우가 이 장수를 그대로 던졌어.
그대로 자빠지더이 고만 못 일어나는기라. 몇 일 누워 있었어. 그개서 그래
고는 광재우만 보면 피해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56)

1)의 경우, 망우당이 어려서 길에 돌로 성을 쌓아놓은 것을 어느 선비가 무너
뜨리고 지나가자 그 선비의 앞을 가로막고 대들었다고 하여, 담력과 용맹이 남
달랐음을 이야기하자고 한 것인데, 망우당의 집이 “좋지 않고 엉망이었다”고
한 데서 사실 이야기가 아님이 자명해진다. 또 2)는 망우당의 인물됨을 설명하
면서, 남명 조식 선생이 외손서를 구하기 위해 쓴 소태국으로 시험을 봤다고
하고, 망우당이 이를 잘 참고 먹었기 때문에 남명 선생의 외손서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남명 선생의 擇擧 방법 치고는 너무 유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3)은 망우당이 군사들로 하여금 가벼운 종이를 가지고 커다란 바위같이
만들어서 발로 차고 다니도록 하여 왜군들에게 겁을 먹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
게 했다고 하여, 망우당의 기만전술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겠으나, 이 또한 그
수준이 너무도 낮다는 점에서 사실 이야기로 보기가 어렵다. 끝으로 4)와 같이,
망우당이 중국 장수를 이겼다는 이야기도 망우당의 용맹과 담력을 그렇게 설
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구연자 자신도 ‘참 우스운 이야기지’라고 했던 것
처럼, 망우당이 중국 장수를 이긴 수법으로는 너무 처절한 것이 문제라고 하겠
다.

못생긴 부인이 의복을 아무렇게나 해주더라도 도량이 넓은 망우당은 나무라지
않고 입고다녔다고 한다. 자료 7, 210쪽, 자료 13, 214-215쪽.

55) 광재우장군 일화(2),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383-384쪽.

56) 자료 142, 303쪽.

3) 사실을 과장해서 허구화한 것

사실에 근거하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꾸며낸 이야기로서, 이때 널리 알려진 설화의 다양한 전승적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龍馬와 호랑이, 異人 등은 망우당의 비범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마을 근처 산 밑에 있는 못에서 용마가 나왔다⁵⁷⁾거나, 용마 타고 다니던 발자국이 그대로 찍힌 청석이 있다⁵⁸⁾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용마를 타고 싸웠기 때문에 왜군들의 조총을 피할 수 있었다⁵⁹⁾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용마가 빠른지 화살이 빠른지 내기를 했다가 망우당이 실수로 용마를 죽였다⁶⁰⁾는 이야기도 있다.

또 망우당이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할까 걱정이 되어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호랑이 앞에 내려놓고 돌아왔다가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호랑이가 겨드랑이에 품고 있더라⁶¹⁾는 이야기, 망우당이 새벽녘에 변소에 가다가 호랑이가 달려들자 두 귀를 잡고 태기질을 했을 뿐 아니라, 호랑이와 싸우는 처녀를 도와준 덕분에 임란을 당해 망우당이 의병장이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나타나서 후봉장 노릇을 하며 선봉장인 망우당을 도왔다⁶²⁾는 이야기, 또 망우당이 호랑이를 추격하다가 호랑이에게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는 여자를 만나서 호랑이를 잡아주고 그 댓가로 여자에게서 축지법을 배웠다⁶³⁾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망우당이 지닌 비범성에도 불구하고 망우당을 도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구출자 또는 양육자가 있어 주목된다. 독고씨라는 異人이 나타나 임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고, 나중에 망우당이 의병장이

57) 광재우장군 일화(5),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431쪽.

58) 자료 115, 289쪽.

59) 자료 84, 273쪽.

60) 자료 63, 258-259쪽, 광재우장군과 말 무덤,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404-405쪽.

61) 광재우 어머니의 효심, 『한국구비문학대계』 3-1, 61-63쪽.

62) 망우당 광재우와 이인, 『한국구비문학대계』 7-15, 382-385쪽.

63) 자료 107, 284-285쪽.

되어 왜군들과 싸울 때에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왜군의 돛대에 앉았다가 날아가면 배가 뒤집히도록 하는 신통력을 발휘해서 도와주었다⁶⁴⁾거나, 호랑이 퇴치를 도와준 댓가로 망우당이 이인에게서 紅衣를 얻고 임란 때 무사했다⁶⁵⁾거나, 망우당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산중에 들었다가 중국 사람을 만나 그 누이와 결혼했는데, 부인이 이인이어서 한 해는 박을 많이 심어 무쇠 바가지를 만들고, 다음 해는 면화를 심고 길쌈을 많이 해서 수천 벌의 붉은 갑옷을 만들어 임란에 대비했다⁶⁶⁾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가 하면 망우당이 왜군에 쫓겨서 큰 강에 다다랐으나 건널 수 없어서 머리를 감는 채 위장하고 있는데 힘이 장사인 망우당의 마부, 혹은 다른 장수가 나타나서 구해주었다⁶⁷⁾거나, 망우당의 친척되는 여자가 보살로 변해서 망우당에게 말 타는 법, 활쏘는 법, 또 여러 가지 전술을 다 가르쳐 주었다⁶⁸⁾거나, 망우당의 이종 누이가 낚시질 하고 있는 망우당을 자갈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 병법을 가르치고 홍의를 벗어주었다⁶⁹⁾는 이야기가 있으며, 망우당의 부인이 이인이어서 임란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인이 불출이어서 버선 하나도 제대로 집지 못했다⁷⁰⁾거나, 얼굴은 못생겼지만 어질었다거나 하는 것은 망우당이 남명 선생의 외손서가 된 내력과 결부되어 흔히 이야기되고 있거니와, 이와는 달리 부인이 조화력을 지니고 있어서 밤에는 팔이 걸리적거린다고 하여 빼어놓고 잤다⁷¹⁾거나, 지혜를 발휘해서 천 석의 재산을 모은 후에 박을 심고 무쇠 바가지를 만들어 착실히 전쟁을 준비하여 의병을 일으키도록 망우당을 도왔다⁷²⁾는 이야기가 있으며, 홍의장군의 내력과 관련해서, 망우당이 의병을 일으켜 출전할 즈음 부인이 남편의 무사함을 비는

64) 광재우장군과 독고씨의 우정, 『한국구비문학대계』 2-9, 797-800쪽.

65) 紅衣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7, 615-622쪽.

66) 광재우 부인의 슬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5, 494-498쪽.

67) 자료 14, 215쪽, 광재우장군 일화(1),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382-383, 광재우장군이 키른 임장군,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597-598쪽.

68) 자료 104, 282-283쪽.

69) 홍의장군을 가르친 불산맥의 딸,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228-229쪽.

70) 자료 7, 210쪽.

71) 자료 1, 207쪽.

72) 자료 18, 218-219쪽.

뚝에서 월경할 때 사용하던 무명천을 도포 위에 걸치게 했다⁷³⁾는 이야기도 있다.

이 밖에 망우당이 겉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으나 기실 신통력을 지닌 이인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여럿 전해온다. 망우당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미워하는 장인과 내기바둑을 뒤희 이기고 천 석 식량을 받아내어 군량미로 썼다⁷⁴⁾거나, 쌀 오백 석을 받아내어 이를 모두 바가지와 바꾸고, 이 바가지를 무쇠 투구처럼 만들어서 왜군을 속여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⁷⁵⁾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망우당이 임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조정에 알렸으나, 조정에서는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여 봉당론에 빠져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임진왜란 날 때는 임진왜란 날 줄 아는 이가 많이 있었거등. 미리 인자 비방을 해야 되는데, 조정의 봉당론 동인 서인의 당론 때문에 못막은 김데, 동인 서인의 그것 때문에 미리 못막은 기라. 망우당같은 이는 임진란 날 줄 미리 알았는데 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함께, 자기말 안 들어주거등. 아무리 캐도 안 되이께 난재 하도 부애가 나서 간이 타고 답답한지 못 전디갖고 대 길지둥에 자기 머리를 부딪혀가고 머리 피껴짐 다 나왔다. 그런데 그 이듬해 난리가 딱 나고 머단 사람 같으나 내 말 안 듣고 말쪽다 카면서 달아날 김데 의병을 일바시켰다.⁷⁶⁾

이 밖에도 매구를 쫓아 무주 구천동까지 축지법을 써서 갔다⁷⁷⁾거나, 神兵을 호령했다⁷⁸⁾거나, 화왕산성을 수축할 때 돌이 없어서 석문산성의 돌을 회초리로 후려쳐 왔다⁷⁹⁾거나 하여 망우당의 비범성을 이야기하는 경우, 또 망우당이 선술을 익힌 것과 관련해서, 귀로 술을 내놓는 재주가 있었다⁸⁰⁾거나, 죽을 때

73) 자료 64, 259-260쪽, 자료 87, 274쪽, 자료 129, 296쪽, 자료 130, 297쪽, 자료 145, 305쪽, 광재우장군과 독고씨의 우정, 『한국구비문학대계』 2-9, 797-800쪽.

74) 자료 62, 256-258쪽, 광재우장군 일화(3),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405-406쪽.

75) 자료 71, 267-268쪽. 이에 대해 망우당의 머슴이 이인이었으나 망우당이 이인인 머슴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료 112, 287-288쪽, 자료 154, 310쪽.

76) 자료 110, 286쪽.

77) 광재우장군 일화(1),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23-24쪽.

78) 자료 111, 286-287쪽.

79) 자료 30, 228쪽, 자료 52, 249쪽, 자료 83, 273쪽.

무지개를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⁸¹⁾거나, 신선이 된 까닭이 어려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동삼을 캐먹었기 때문이라⁸²⁾는 등의 이야기, 그리고 나라의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 때 비석이 눈물을 흘렸다⁸³⁾거나 하는 이야기들도 미화되고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사실을 왜곡해서 허구화한 것

이는 사실을 반대 방향에서 틀리게,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으로, 와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망우당이 직접 소금을 지게로 져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용맹도 없이 기운만 센 것뿐이면서 자신의 기운만 믿고 통행세를 내지 않았다⁸⁴⁾거나, 망우당이 세도를 부리는 양반의 집 재목을 지게로 져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하고, “남의 머슴이나 살았지, 용맹은 없다”⁸⁵⁾거나, 망우당이 자신의 힘을 내세워 남의 나무를 훔치는 인물이었다⁸⁶⁾고 하거나, 망우당을 도술 닦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루에 독한 술 한 동이를 마셨다⁸⁷⁾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런가 하면 공철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망우당이 군비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공씨를 상놈으로 만들고 대대로 공씨와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했다⁸⁸⁾거나, 망우당이 왜적을 물리치면서 사용한 모든 전술이 역적의 아들인 임소희에게서 나왔다⁸⁹⁾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 사실기록에서 망우당이 연전연승한 것과는 달리 설화에서는 망우당이 패배하는 내용이 더러 있어 주목된다. 망우당이 왜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이야기되는데, 첫째는 지형이나 산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패배한 경우이고, 다음으로는 수가 낮은 기만전술을 거듭 쓰다가 왜군

80) 자료 72, 268쪽. 기타 자료 82, 272-273쪽, 자료 86, 274쪽, 자료 108, 285쪽.

81) 자료 85, 274쪽, 자료 116, 289-290쪽.

82) 자료 151, 308쪽.

83) 자료 19, 219쪽.

84) 자료 152, p.309.

85) 자료 148, 306쪽.

86) 자료 150, 308쪽.

87) 자료 149, 307쪽.

88) 자료 55, 251쪽, 자료 56, 251쪽.

89) 자료 103, 282쪽.

이 알아차리는 바람에 패배했다는 이야기다.⁹⁰⁾ 앞만 보고 화왕산성을 지키다가 왜군이 뒤로 우회하여 공격하는 바람에 패배했다⁹¹⁾는 ‘일야봉전설’과 함께 왜군이 화왕산을 황산으로 알아듣고 지세가 황새처럼 생긴 것으로 생각하여 뒤쪽을 공격해서 완전히 점령했다⁹²⁾는 이야기나, 망우당이 백마산성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왜군이 말은 뒤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뒤로 가서 덮쳤다⁹³⁾고 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전자에 속하고, 땅벌과 화약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마침내 왜군이 이를 알아차리고 벌통을 건드리지 않거나 총을 쏘아 폭발시킴으로써 망우당이 패배했다⁹⁴⁾거나, 백마산성 싸움에서 흰쌀을 이용하여 마치 식수가 넉넉한 것처럼 기만전술을 썼다가 왜군들이 뒤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모두 다 죽었다⁹⁵⁾는 이야기는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실패담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누구에게나 부주의와 실수 같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실을 왜곡한 이야기 가운데 ‘부하의 공을 가로챈 광재우’는 전승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한다.

수백 년 전의 일이라 하나, 나는 광재우장군을 별로 추대를 안해요. 그 원인이 어데 있는 기 아이라 우리 일가라 카이깨네 하는 소린데. 본대 흥의 장군하고 우리 조상, 내게 11조인데, 그 어른하고 동시대거등. 광재우가 우리 조상 요량하마 좀 우수하기 잘 났던 모양이지. 내가 생각해 보기로는 수백 년 전 일이지만, 우리가 목도해 본 일은 아이고 그저 역사적으로 들은 이야기고, 더군다나 나는 역사도 모르고 하나마 우리 조상 그 어른은 망우당의 아장으로 있고 했는데 말이다. 그 당시에 공위겸이라고 있었어. 공씨네 들 조상인데 그때 공위겸이라는 그 사람이 역적모의를 했던 모양이다. 그때 그놈을 상소를 한개 잡아라 카거등. 우리 조상이 그를 잡았다. 잡아서 나라에 보내는데, 광재우한테도 전했다 말이다. 광재우가 아장이 보내는 보고를 가지고 가 가지고 나라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잡기는 신아무개가 잡았다. 가지고 오기는 내가 가왔다”이카마 자기도 올라가고 충신되고 우리 조상도

90) 임재해, 앞의 논문, 94쪽.

91) 자료 65, 260쪽, 자료 113, 288쪽, 자료 139, 302쪽.

92) 자료 25, 225-226쪽, 자료 57, 252쪽, 자료 133, 298-299쪽, 자료 138, 301쪽.

93) 자료 69, 264쪽, 자료 155, 310쪽, 자료 156, 311쪽, 자료 158, 312쪽.

94) 자료 97, 279쪽, 자료 128, 296쪽.

95) 자료 158, 312쪽.

충신되고 할 텐데, 우리 조상은 까문태뽀고 자기가 잡은 양으로 그래 상소를 해 가지고 자기는 그뎌 명의를 올라가서 오늘날꺼정 역사에 남아가 있거 등. 우리 조상은 이름도 성도 모리고 말이다.⁹⁶⁾

위에서 구연자는 자기 조상이 망우당의 부하였다고 하면서, 역적을 잡은 자기 조상의 공을 망우당이 가로채는 바람에 충신도 되고 명기도 올라가고 했을 자기 조상이 이름도 성도 모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이는 조상을 매개로 한 가문과 가문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드러낸 것으로, 이질적인 전승집단에 의한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실록에서 광재우는 首級을 모두 강숙에 던져버리고 공을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⁹⁷⁾거나, 勤王하려는 뜻은 있으나 공을 바란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감히 오지 않는다⁹⁸⁾거나, 또는 광재우는 의병을 일으켜서 길을 막고 죽인 왜적이 매우 많은데도 자신의 공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⁹⁹⁾거나 하였다. 그리고 宣祖의 敎書에 의하면, 광재우는 비상한 작전으로 적을 많이 죽였는데도 그 공로를 스스로 알리지 않고 있으니 내가 더욱 기특하게 여기는 바로 그의 명성을 늦게 들은 것이 한스럽다¹⁰⁰⁾고 하였으며, 사신은 논란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칼날을 쓰다듬고 하찮은 일에 골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찌 크게 다르지 않겠는가¹⁰¹⁾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용사별록>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공은 처음부터 적군의 머리 베는 것을 금지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땅히 나라를 위해 적군을 토벌해야 하는 것이니, 적군의 머리를 올려 전공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의리에 옳지 않다. 전공을 탐내어 목베기를 즐겨하면 반드시 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李魯가 말하되, “공의 본뜻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을 따라 힘써 전쟁을 하는데 누군들 공명심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군사들이 나태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砥山 전투에서 사살한 적군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음에 비로소 적군의 목 베기를 허락하였다. 이에 병사들

96) 자료 131, 297-298쪽.

97) 『선조실록』 권21, 선조 25년 7월 18일조 참조.

98) 『선조실록』 권21, 선조 25년 7월 24일조 참조.

99) 『선조실록』 권21, 선조 25년 8월 16일조 참조.

100)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5년 8월 1일조 참조.

101) 『광해군일기』 권32, 광해군 9년 6월 4일조 참조.

은 다투어 물에 들어가 베어 온 적군의 머리가 70여급이 되었으나 모두들 스스로 공을 차지하지 아니하였다.¹⁰²⁾

이 밖에 망우당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¹⁰³⁾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이 와전된 경우라 하겠다.

IV. 전승집단의 전승의식

앞에서 자세히 살핀 바, 사실과 허구의 구체적 양상을 통해서 전승집단의 전승의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망우당설화에서 실제 사실이 그대로 구전되는 이야기는 그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 이들 자료에서 망우당은 고귀한 혈통의 가문에서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임란이 일어나자 우국애민과 의리정신에 입각해서 가산을 털고 의병을 모아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자가 되었으며, 임란 후에는 강호에 은거하여 신선술을 익히는 삶을 살았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용맹을 떨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후에는 예사 사람처럼 숨어서 지낸 이인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망우당의 양면성으로서 귀족적 영웅상과 이인상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승자의 의식은 기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거나 문헌에서 전하는 사실 기록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겠으나, 전승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구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구연자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 그대로의 구연이 망우당설화의 가장 일반적인 존재방식이 되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망우당이 역사적 인물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102) 『망우선생문집』 부록, 龍蛇別錄, 公自初禁斬曰 人當爲國討賊 獻首要功 於義不可貪功喜斬 必多遇害 勅諸軍毋得斬馘 李魯謂公曰 公之本意甚善 諸人從公力戰者 其孰無功名之心乎 其終必怠 其後砥山之捷 射殺無慮 始許斬首 士爭赴水 所斬七十餘級 皆不自與焉.

103) 자료 109, 285쪽.

다음으로 사실을 부연해서 허구화한 이야기는 민중의 소박한 상상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실 기록이나 사실 이야기가 전하는 망우당의 비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같은 이야기는 망우당이 어려서부터 지략과 용맹이 뛰어났다거나, 왜적과 싸울 때 위장술과 기만전술에 능했다거나 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소재가, 예를 들어, 소태국, 양철 조각, 물레방아, 쇠꼬리, 수수께끼, 흰쌀, 식수, 바가지, 무쇠 투구, 새끼줄, 허수아비, 벌통, 짚단 등과 같이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서 취한 것인데다가, 발상 자체가 단순, 소박하거나, 때로 치졸하기까지 함으로써, 이같은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의 흥미위주의 전승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사실에 대한 부연의 방식은 전승집단의 유희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실을 과장해서 허구화한 이야기는 설화의 다양한 전승적 모티프를 차용하여 망우당의 인간상을 보다 창조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龍馬와 호랑이, 이인 등을 통해 망우당의 비범성을 그려내고 있는 바, 이인이 나타나 망우당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거나, 망우당 자신이 이인이었다거나 하여 거의가 이인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망우당을 도와주는 이인으로는 독고씨를 비롯하여 처녀, 보살, 여자, 마부, 머슴, 장수, 누이, 부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망우당 자신이 이인이라고 하는 데서는 미리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전쟁준비를 했다거나, 조정에 이를 알리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을 과장해서 허구화한 이야기는 망우당의 이인적인 면모를 소재로 하되 실제 사실에는 크게 구속되지 않으면서 민중의 이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듭된 전란을 통해 고난과 위기를 겪고 살아야 했던 이 땅의 민중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고난과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 줄 이인의 출현을 절실하게 갈구했을 것이 분명하다. 망우당설화에서 망우당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이 이인으로 이야기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허구화한 이야기는 망우당에 대해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창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영웅의 일생에서 볼 때, 민중적 영웅은 무엇보다도 미천한 혈통의 인물이며, 나아가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면서도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데서 귀족적 영웅과 구별되

는데, 사실을 왜곡한 이야기 대부분이 실제로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사실 이야기와는 달리 망우당의 출생 신분을 미천한 것으로 보고 단지 기운만 센 인물이었다거나, 왜적을 물리친 모든 전술이 역적의 아들에게서 나왔다거나 하는 데서부터 심지어 지형이나 산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패배했다거나, 수준이 낮은 기만전술을 자주 쓰다가 패배했다거나 하는 실패담이 많이 전한다. 이와 같은 실패담은 망우당의 연전연승한 실제 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부주의, 실수 같은 한계를 지니며, 그로 인해서 불행과 좌절,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민중의 비극적 인간관을 잘 반영했다고 할 것이다.¹⁰⁴⁾ 이 밖에 더러 고의적인 왜곡이나 와전의 경우에서 전승집단의 이질성을 엿볼 수 있다.

V. 마무리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먼저 <곽재우전>에 기록된 망우당의 역사적 행적에서, 임란 당시 최초의 의병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일생을 우국애민과 의리정신에 투철했던 귀족적 영웅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신선술을 익혀 은둔생활을 했던 이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설화화의 계기 및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망우당의 명장으로서의 활약상, 특히 지략 위주의 기발한 전술에 대한 민중의 관심과 흥미에서 설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실과 허구의 관련 양상은 1) 사실이 그대로 구전되어 온 것, 2) 사실을 부연해서 허구화한 것, 3) 사실을 과장해서 허구화한 것, 4) 사실을 왜곡해서 허구화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1)은 설화의 최소 요건인 구전성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하지만, 자료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실 기록과는 달리 흔히 사소한 부분에서 錯綜을 보여준다.

104) 이에 대해 林在海(앞의 논문, 95-96쪽)는 절대적 인물을 설정하지 않는 민중의 인간관과 땅의 형상을 중요시하는 민중의 자연관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2)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로, 망우당의 비범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단순, 소박하고 치졸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3)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로서, 龍馬, 호랑이, 異人 등 설화의 다양한 전승적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4)는 사실을 그릇되게 해석한 경우로서, 사실 기록과는 달리 실패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더구나 '부하의 공을 가로챈 광재우'의 경우에는 이질적인 전승집단에 의한 고의적인 왜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끝으로 전승집단의 전승의식과 관련한 논의에서 1)의 경우, 전승자의 의식은 사실기록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겠으나, 전승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구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구연자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2)는 민중의 소박한 상상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서 취재하여 망우당의 비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발상이 지나치게 단순, 소박하거나, 때로 치졸하기까지 한 데서 민중의 흥미위주의 전승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3)은 설화의 다양한 전승적 모티프를 차용하여 망우당의 인간상을 보다 창조적으로 그려낸 것으로서, 거의가 이인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인에 대한 민중의 깊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4)에서는 망우당의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창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특히 지형이나 산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패배했다거나, 수준이 낮은 기만전술을 자주 쓰다가 패배했다거나 하는 실패담에서 민중의 비극적 인간관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광재우, 망우당설화, 영웅, 이인, 귀족적 영웅, 민중적 영웅, 사실, 허구, 전승의식

참고문헌

- 곽망우당기념사업회 편, 『홍의장군곽망우당』, 연합신문사, 1959.
- 곽망우당기념사업회 편, 『망우당곽재우연구』(1), 1988.
- 곽망우당기념사업회 편, 『망우당곽재우연구』(2), 1989.
- 곽망우당기념사업회 편, 『망우당곽재우연구』(3), 1992.
- 곽망우당기념사업회 편, 『망우선생문집』, 景忠齋, 1996.
- 김광순, 「곽망우당설화연구」, 『망우당곽재우연구』(3), 곽망우당기념사업회, 1992.
- 김석희, 「임진왜란의 의병에 관한 재고찰」, 『논문집』 13, 부산대, 1972.
- 김윤근, 「곽재우의 의병활동」, 『역사학보』 33, 역사학회, 1967.
- 소재영,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2.
- 신태수, 「곽재우전승의 양상과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장희, 『곽재우연구』, 양영각, 1983.
- 임재해, 「전설에 나타난 곽망우당의 영웅다움과 이인다움」, 『망우당곽재우연구』(3), 곽망우당기념사업회, 1992.
- 임철호, 『임진록연구』, 정음사, 1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전82권), 고려원, 1980~1989.

<Abstract>

The Aspects of Fact and Fiction in *Mangwoodang-Tales*

Kwak, Jung-Sik

This treatise is attempted to discuss about the aspects of fact and fiction in *Mangwoodang-*tales**. I epitomize the subject matter which is discussed in the upper parts as following.

First, the aspects of fact and fiction is divided as following, 1) hand down orally as facts, 2) fabricated one by amplification, 3) fabricated one by exaggeration, 4) fabricated one by distortion.

Second, as the consciousness of transmitters, 1) in hand down orally as facts, it shows transmission-consciousness as what is showed by the documentary-writers. 2) in fabricated one by amplification, it shows transmission-consciousness which is connected popular interests. 3) in fabricated one by exaggeration, it shows transmission-consciousness as a concern and anticipation of a genius's arrival. 4) fabricated one by distortion, it shows the people's view of life which deny a allmighty human's existence and the people's view of nature which value much of the shape of the earth.

Key Words: Jae-Woo Gwak, *Mangwoodang-*tales**, fact and fiction, documentary-writers, transmission-consciousness